2019-05-06 2am

너가 나에게 잘 해 주는 것에 비해 내가 항상 불만이 많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가 나에게 잘 해주는 건 나도 알겠어.

근데 난 태생이 외로운 사람 인 걸 까?

인생의 soul mate처럼 즐거움도 함께, 외로움도 함께. 작고 소박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그냥 재미 있게 사는 걸 바랄 뿐인데. 우리 사이엔 공유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

1,2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금방 결혼까지 하게 됐어. 너를 보면 웃음이 나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거구나.’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결혼을 약속하고 홍콩에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어.

우리만의 보금자리여야 할 ‘신혼집’ (사실 이렇게 부르기에도 맞는 것 같지 않지만)

알콩달콩, 아기자기 우리가 가꿔가며 살고 싶었던 우리 집은 매주 부모님, 형 네 부부, 친구들까지, 집 열쇠를 갖고 다니며 들락날락 하고 있었고. 혹시 누가 올까 싶어 너가 새벽까지 놀러 나간 날에는 화장실에서 맘 편히 샤워 한번 하지 못했어. 갑자기 누가 올까 싶어서. (실제로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에 친구가 미리 이야기도 없이 문 열고 들어온 적이 있었지.) 당연 해야 할 것 들이 당연하지 못하고 불편 한 것들이 되었고, 난 당연히 그 것들을 감수해 내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어.

홍콩 결혼식을 앞둔 일주일 간이였던 걸로 기억해.

난 그때 우리의 결혼을 멈출 수는 없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이 쉽지는 않겠구나, 예감이 들었어.

내가 이 집에 혼자 있던 말던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 함흥차사.

이제는 새벽3시에 들어오는 일쯤은 예삿일이 되었지.

정상적인 가정생활, 부부생활 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아. 섹스를 두 달에 한번 하는 일도 이제 놀랍지도 않아. 매사 불평하기도 그렇고 불만을 품는 나에 대해 너 또한 불만이 있을 거야. 나는 만족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루는 밤에 나가 새벽에 들어오는 너를 기다리다가 ‘씨발, 나도 나가자.’ 하고 없는 약속을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내고 매번 모르는 사람들과 억지 만남을 갖게 됐어. 좋아서 나가는 게 전혀 아니거든. 또 한날은 ‘어디보자, 내가 너보다 늦게 들어 갈거야.’ 억지 다짐을 하고 꾸역꾸역 너무 외롭게 혼자 바에가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내 자신이 애처로웠지만). 니가 혼자 잠들 때까지 새벽까지 집 앞 놀이터에서 거실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린 적도 있었어. 혼자 잠 드는거. 난 그게 너무 싫었거든, 너도 그 기분의 10분의 1이라도 느낄까 싶어서.

모든지 히히 하고 웃어넘기는 너에게 난 더 이상 진지 해 질 수 없었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사랑이 너무 독특하고 좋았던 나인데.. 평범하게 남들처럼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신혼 집 꾸미고 둘만의 여행도 가는 평범한 인생이 부러워지더라.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그려 나가야 할 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렵고 사실 좀 힘들어.

집에 혼자 오도카니 널 기다리는 내 모습도 너무 싫고.

쇼핑하나, 작은 물건 하나 못 사고 망설이는 내 모습도 너무 싫다.

오늘 내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어제도 마찬가지로 넌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나간 뒤 몇 시간 동안 어디서 누구랑 무얼 하는지 연락 한 통 없었고 그 김에 나도 몇 번 그랬던 것처럼 억지 약속을 만들어 밖에 나갔고 모르는 사람들과 어색한 대화 어색한 웃음 속에 맥주 한 잔을 하다가 그 술집에서 쓰러 졌어.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말소리에 정신이 돌아왔고 누군가는 쓰러진 나를 부축하고 있었어. 정신이 아득한데 너보다 늦게 들어 갈 거라는 다짐을 뒤로하고 유일한 내 보호자인 너에게 연락을 했는데 언제 들어 갈거냐는 나의 물음에 넌 좀 늦게 들어 갈거라는 대답을 했고 나 몸이 안 좋아 라는 나의 말에 특별한 대답을 못 들었어. 내 전화도 받지 않(못했겠지)았어. 내가 이렇게 써내려 가는 나의 속 깊은 말들을 잘 이 해 할 수 있을지도 나를 슬프게 해. 겨우 정신차려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길거리에서 추파를 던지는 한 남자 때문에 난 또 자연스레 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이내 끊어 버렸어. 아. 아까 안받았지.

이제 하룻동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 너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너에게는 불만이고 불평으로 들릴 테니까. 우리 관계의 밸런스, 내 삶,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건지 조금 더 고민 해 볼게.